

# 문화가

예술의전당 '오늘의 한국미술\_미술의 표정'전

## 무적·신진작가가 뜬다

(소속 화랑·매니지먼트사 없음)

**박수호 기자** 예술의전당 '미술의 표정'전 46인의 작가들의 향연이 이채롭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무적작가들. 무적작가란 갤러리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에 속하지 않은 채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서민석 예술의전당 큐레이터는 "주제를 갖고 작품을 구하다 보니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작가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한국 미술사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낮과 밤, 안과 밖 등 서양식 2분법적인 사고가 알고 보면 허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안에서 안을 보다' '밖에서 밖을 보다'는 이번 전시에서 단연 인기를 끌었다. 그가 주요 작품 소재로 쓰는 고양이, 초승달, 목마, 창문 등은 관객들과의 접점을 좁힐 수 있는 친근감으로 작용한다.

박소영 작가는 주로 작품활동을 해왔던 난지스튜디오를 벗어나 시카고에서 제2의 작품세계를 추구할 예정. 박 작가는 "그세계의 양면성을 또 다른 공간에서 고민하며 작품세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작품 속 주인공 공인양 연신 그림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송은영 작가(38)는 "거울에 비친 환영들은 내가 움직이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아주 '하찮고 가벼운' 환영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풍경 또한 내가 눈을 감거나, 죽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아주 '하찮고 가벼운' 환영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작품은 출발한다"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유학파인 송은영 작가는 지난해 싱가포르 옥션에 초청받기도 한 기대주다.



박소영의 '안에서 안을 보다(2006)



**박소영**  
양면성 띠는 세상  
따뜻하게 조망

이번 전시에서 사다리 폴 캔버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모았던 박소영 작가(37)는 2002년 개인전에 이어 2004년 중앙미술대전 단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작품은 색만 놓고 보면 다분히 긍정적이고 따뜻하다. 하지만 공간 배치와 구도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밀동 잘린 나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라든지 골프연습장 그물이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대형 모기장을 떠올리게 한다. 흔히 접하는 직선도로는 실은 누워있는 오리모양의 산자락을 싹둑 베어놓은 듯한 작품에서 개발 논리의 폐해도 엿보게 된다.



송은영의 '침범하는 밤III(2007)



**송은영**  
환영과 현실  
들이 아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집이 캔버스에 녹여져 있다. 일명 '효도의자로 불리는 걸레질할 때 쓰는 비취 의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덧신, 식탁 위에 올려진 바나나 등을 보면서 관객은 '실성 높은 작품인가 보다' 하며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다시 자세히 보면 뒤에 있는 듯한 문이 앞에 나와 있는 바나나와 겹쳐있는가 하면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지지대는 없는 식이다.

관람하던 한 아이가 "두 개의 세상아네"라며 까르르 웃는다. 작품에 붙어있는 실



이소영의 '뒤돌아본 낮빛(2008)



**이소영**  
수묵 애니메이션  
'입관'

한·중·일, 가까우면서 멀다. 동양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물화만 놓고 봐도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소영 작가(40)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간 꾸준히 한국화를 그려오던 이소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동양회화의 병아리가 벽걸이TV에서 걸어다니는가 하면 일본 무사풍의 인물은 여러 표정이 겹쳐지는 등 애니메이션을 시도한 것. 이번 전시에 소개된 '뒤돌아본 낮빛'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회화에서 발췌한 인물의 표정들을 따로 떼 내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평을 얻었다. ECO